

추석 연휴 기차표 예매 첫날부터 ‘먹통’

3시간 넘게 웹사이트 작동 안돼

복구 후 접속 주요 노선 이미 매진

오늘 호남선 예매도 반복 우려

추석 연휴 기차표 예매 첫날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식 앱과 웹사이트가 ‘먹통’이 돼 불편이 잇따르자, 18일 호남·전라선을 예매하려던 귀성객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레일은 17일 오전 7시부터 경부선·경전선·동해선 구간 추석 승차권 온라인 예매를 진행했으나, 3시간 넘게 앱과 웹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앱과 웹사이트 화면에는 ‘정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문구만 표시될 뿐, 대기 번호조차 뜨지 않는 경우가 속출했다.

당초 예매 화면에서는 접속 시 대기자 수가 표시되고, 먼저 접속한 이용자의 제한 시간이 지나면 순

차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으나 아예 대기 번호조차도 뜨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일부 이용객들은 간신히 대기 화면으로 넘어가도 순번이 수만 번대에서 많게는 100만 번대까지 밀리나며 1시간 이상 접속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코레일은 당초 오후 1시까지였던 예매 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고 복구 조치를 했으나, 복구 이후인 오후 1시경 경부선 하행 주요 열차는 이미 매진된 후였다.

코레일은 지난 1~4일 나흘에 걸쳐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19일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선로 안정화 조치를 하면서 열차운행 일정을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예매 일정도 미뤄져 15일부터 18일로 정해졌다.

15~16일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전예매 일정을 진행했고, 17일은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

·경북선, 18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을 예매할 수 있게 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18일로 예정된 호남·전라선 예매일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스템이 복구된 이후 뒤늦게 접속해 보니 주요 노선은 이미 매진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도, 18일에도 이용자가 몰려 제대로 예매를 하지 못하면 이번 추석에 기차표를 아예 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레일은 18일 호남·전라·강릉선 등 예매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변동 없이 운영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올해 추석이 가장 6일간 이어지면서 예매객이 지난해보다 72% 늘어나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접속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이열치열’ 무더위 탈출 낮 최고기온 30도를 보인 17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상의를 벗고 달리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

전남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못채워 혈세로 수십억원 부담금

지난해 74억·내년 100억 낼 듯

전남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수십억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인권, 평등 등을 교육하는 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차영수(민주·강진) 전남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부담금 74억원을 납부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3년 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 2022년의 경우 782명 이상을 채용해야했지만, 절반조차 채우지 못했고(409명 미달), 2023년에는 419명, 지난해에도 483명이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전남도교육청은 2022년 29억원, 2023년 66억원, 지난해에는 75억원을 부담금으로 냈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이 고용한 장애인 직원 수는 지난 2022년 373명에서 2024년 344명으로 되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기관 당치가 커지면서 고용해야 하는 장

애인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남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도에 납부해야할 부담금은 100억원 가까이로 추정되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이날 열린 전남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임용 시험에서 장애인 지원자가 없다면 임기제 등 합법적인 조치를 통한 채용을 검토할 수도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편견없이 성장하길 바라는 것은 아 이러니”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기계만으로는 학내 안전 담보 못해” 학생·학부모, 경비원 고용승계 호소

한국에너지공대 해고 위기…학교측 “무인 경비 도입 계획 없어”

광주·전남 지역 캠퍼스에 17일 ‘한국에너지공대 경비원 고용승계를 위한 학생·학부모 호소문’이 올라왔다.

호소문 작성자는 “학교 개교 전부터 24시간 학생 안전과 생활을 지켜온 경비원들이 내년부터 무인 경비 도입, 용역업체 교체 등을 이유로 해고 위기에 처했다”며 “2021년부터 헌신한 경비원을 ‘비용 절감’과 ‘기계화’ 명분으로 낡은 노동자로 내모는 게 맞느냐”고 주장했다.

호소문은 “경비원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울타리”라며 도움을 요청하면서 학교가 최근 경비원에게 야외 순찰을 늘리고, 순찰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사실상 퇴직을 유도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호소문을 접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경비원 고용 승계를 지지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새벽에 소방 점검 알람이 울리면 제일 먼저 뛰어나고 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난다”, “항상 ‘조심히 들어가라’는 말 한마디가 낯선 기숙사 생활에 큰 힘이 됐다”, “기계만으로는 기숙사에서 느끼는 안심을 대신할 수 없다. 특히 기숙사에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안정감을 준다”는 등으로 경비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드러냈다.

해당 글을 조회한 카페 회원들이 수십 명에 이

르고 공감을 표시하는 등 관심을 끌면서 사실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면서 학교측도 즉각 대응에 나서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학 측은 “무인 경비 시스템을 새로 도입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캠퍼스 안전시설팀 관계자는 “경비원은 대학 소속이 아니라 용역업체 소속으로 매년 입찰을 통해 계약이 이뤄진다”며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만 65세 이하 경비원 고용 승계를 계약 조건에 명시해왔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내년에도 유인경비 인원 감축이나 AI·로봇 경비 도입 계획은 없다. 오히려 예산과 관리구역 확대에 맞춰 인력은 유지 또는 증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캠퍼스 현장에서 만난 경비원들은 “학교가 차차 무인 경비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우리같은 용역 소속 비정규직들이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만, 학생들이 우리를 생각해주는 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마침내 폭염 끝…오늘부터 선선한 날씨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가 지나고도 열흘 가까이 이어지던 무더위가 누그러지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8일부터 다음주 주말까지 최고 기온이 26~27도의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동쪽으로 물러난 데 이어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6~20도, 최고 26~

28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3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를 보이고, 19일 아침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도 25~28도가 예상된다. 20일에도 낮 기온이 28도 이상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20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에는 비가 가끔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전남도 다음달 12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

전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10월 12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남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후기를 작성한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500명을 선정, 기존 답례품 외에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직접 담근 배추김치나 파김치 중 1가지(1kg)를 추가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추석을 앞두고 전남 농가를 돕고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